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5. 11. 3.(월) 8:00	담당기관	주영한국문화원

## 한국의 SF소설에서 웹툰까지 런던 중심에서 펼쳐진 한국 도서의 향연, K-컬처 출판문화, 영국 주류 독자와 만나다

- 주영한국문화원, 포일즈 서점과 협력해 'K-도서 축제'  
영국 현지에서 성황리에 개최

-문학·요리·웹툰 아우르는 장르적 스펙트럼으로 한국 출판문화의 확장성 확인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이하 문화원)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5년 K-북 해외 홍보·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런던 포일즈(Foyles) 서점과 협력해 특별 'K-도서 축제(K-Book Festival)'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런던 중심부 채링크로스에 위치한 포일즈 본점에서 진행되었다. 서점 내에는 한국 문학 번역서부터 요리책, 웹툰, 에세이, 원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국 도서가 집중 진열되어 약 10만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선보여졌다. 포일즈는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하루 평균 약 3천 명이 방문하는 영국 대표 서점으로, 이번 협업은 한국 출판 콘텐츠가 영국 유통망에 본격 진입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 문화원은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 출판의 장르 다양성과 창의성, 문화적 감수성을 현지 독자들에게 알리는 실질적 접점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그 중심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전 세계 출판시장의 거점인 런던에서 한국 작가들이 글과 책을 통해 SF 소설, 웹툰, 음식 등 다양한 장르로 제

뜻을 펼치며, 한국 미학이 담긴 K-컬처의 다채로운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영국에서는 한국 여성 작가들의 섬세한 감성과 솔직하고 생동감 있는 서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소프트 파워는 바로 감정의 힘입니다.”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 작가와 독자의 교감, 한국 출판 콘텐츠의 생생한 가능성 확인

○ 이번 K-도서 축제 기간 중 진행된 세 차례의 작가 초청 행사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10월 15일, 세계적인 셰프이자 방송인인 주디 주(Judy Joo)가 참여한 북토크에서는, 그녀의 신간 『K-Quick: Korean Food in 30 Minutes or Less』를 중심으로 한식의 글로벌화와 현대적 변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빠르고 간편한 조리법과 깊은 풍미를 결합한 그녀의 요리 철학은, K-푸드의 미학과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 10월 25일, 웹툰 <이두나!>의 원작자로 잘 알려진 민송아 작가는 K-웹툰의 세계화, 디지털 플랫폼 변화, 창작자로서의 태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작가는 “계약이나 플랫폼 모두 중요하지만, 들뜨지 않고 제안의 세계에 집중하려 한다”며, 외부의 반응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과 주제에 몰입하는 것이 창작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웹툰 업계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시선을 공유하며, 변화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행사 이후, 현장에서 소개된 <이두나!> 도서는 포일즈 매장에서 준비된 재고가 모두 소진되며 현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 11월 1일, 『천 개의 파랑』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은 천선란 작가는 기술과 감정, 인간성과 타자성의 교차점에 대한 SF 서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그녀는 작품 집필 배경을 공유하며 “감정을 가진 로봇이라는 설정을 통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었다”고

밝히는 한편,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에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 놓인 접근성과 윤리성,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학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던 그녀의 메시지는, 책 이상의 감성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관객과의 깊은 교류로 이어졌다.

○ 세 작가는 행사 후에도 관객과의 질의응답 및 저자 사인회를 통해 현지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이를 통해 한국 출판 콘텐츠가 영국 주류 서점과 독자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박강인 주영한국문화원 문학·콘텐츠 기획 담당은 “이번 포일즈와의 협업은 한국 도서 콘텐츠가 현지 유통망과 보다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실험하고 구체화해보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한국문학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실질적인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 교류의 장으로 진화한 이번 K-도서 축제는 단순한 북토크를 넘어, 문학·요리·웹툰 등 한국 출판문화의 장르적 스펙트럼과 예술적 깊이를 영국 현지에 소개하며,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실감케 한 자리였다. 특히 포일즈와의 협업을 통해 도서 콘텐츠의 실질 유통 기반과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실현했다. 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현지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한국문학과 콘텐츠가 세계 문화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교류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 붙임 1. ‘K-도서 축제’ 행사개요
- 2. ‘K-도서 축제’ 행사사진

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s.sun@kccuk.org.uk)
		담당자	실무관	박강인 (k.park@kccuk.org.uk)



□ 행사

- 행사일시 : 2025년 10월 중순 - 11월 중순 (영국 현지시간)
- 행사장소 : 런던 포일즈 서점, 채링 크로스 점
- 행사내용 : 한국 출판문화의 장르적 다양성과 창작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영국 독자와 공유하는 포일즈 서점 연계 특별 프로그램. △10월 15일 (수) 저녁 7시 주디 주 (Judy Joo)와의 대담, △10월 25일 (토) 오후 5시 민송아 작가와의 대담, △11월 1일 (토) 오후 4시 천선란 작가와의 대담 진행

행사 사진



메인 포스터



주디 주 행사 전경



민송아 행사 전경



천선란 행사 전경